

“홈런을 쳐라” 호랑이들 특타 훈련



KIA 타자들 샌드백 상대로 스윙 '구슬땀'
 선동열 감독 일본서 방망이 가져와 지원

‘샌드백’이 파워 업그레이드를 위한 KIA의 훈련 파트너가 됐다.
 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이색 훈련이 펼쳐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난주 원정길에서 불방망이를 선보이고 돌아온 KIA 타자들은 경기장 한쪽에 설치된 샌드백을 상대로 스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소리까지 요란한 이 훈련의 목적은 파워 업그레이드. 힘있는 투수들의 공에 밀리지 않고 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양년의 선수들이 타이어를 때리면서 힘을 키웠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된 작품이다. 스윙 계획에 따라서 샌드백의 울림소리도 다르다는 게 코치진의 얘기다. 정확하고 강한 스윙으로 샌드백을 가격해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장타가 실종된 KIA는 지난주 내지원의 투런포와 조영훈의 만루포 등으로 겨우 팀 홈런 20개를 채웠다. 잠자던 타선의 점화에는 성공했지만 장타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만큼 홈런 양산을 위해 KIA는 샌드백까지 동원했

다.
 KIA 선동열 감독도 타자들의 거침없는 질주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몇 차례 타자들에게 방망이를 선물했던 선 감독이 3일 일본에서 공수해온 방망이를 또 내놓았다.
 덕아웃에서 타자들의 훈련을 지켜보던 선 감독은 선수들을 직접 불러 방망이를 챙겨 주며 덕담을 건넸다.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고 있는 외야수 김원섭과 이준호에게는 특별히 두 자루가 건네졌다.
 “김원섭이 앞서 선물한 방망이를 실전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 이준호는 이범호의 양보로 덤으로 한 자루를 더 챙겼다.
 이범호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이)준호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선 감독의 선물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준호에게 두 자루가 돌아갔다.
 내지원에게는 가장 무거운 방망이가 쥐어졌다. 하지만 몇 차례 빈 스윙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선 선수도 있다. 팀에서 가장 가벼운



KIA 박기남이 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샌드백을 이용한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방망이를 든 이용규와 김선빈이 그 주인공. 선 감독은 “따로 주문을 해왔는데 시간이 걸린다. 나중에 한꺼번에 두 자루를 주겠다”며 빈손으로 돌아선 이용규를 달랬다.

연승과 함께 순위싸움을 위한 밑바탕을 그린 KIA가 본격적인 순위싸움을 위해서 타격 특히 파워 업그레이드를 7월 목표로 내걸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페인인은 지금 축구축제 중
 지난 2일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서 유로 2012 우승팀인 스페인 축구 대표팀이 오프탑버스를 타고 우승 축하 퍼레이드 행사를 벌이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연남뉴스

양속 레알·바르샤를 하나로 ‘무적함대’ 전성기 이끈 명장

스페인 델 보스케 감독

“스페인 축구는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우리는 위대한 세대를 논하고 있다.”
 스페인 축구대표팀 사령탑 델 보스케(62) 감독이 2012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2)에서 ‘무적함대’의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한 감격을 ‘위대한 세대의 역사적인 승리’로 표현했다.
 스페인은 월드컵이나 유로 등 주요 대회 때마다 항상 우승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우승컵을 들기에는 언제나 2%가 부족했다. 프리메라리가(이하 라리가)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를 가지고 있고 선수들 구성 또한 최강이었지만 적은 내부에 있었다. 바로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샤) 팀 선수들과 레알 마드리드(이하 레알) 팀 선수들의 불화였다.
 라리가는 경기 자체가 전쟁이다.
 카탈루냐는 19세기 말 사회주의 및 무정부 운동의 중심이었다. 당시 프랑스 군사정권은 1939년 내전을 승리로 이끈 뒤 카탈루냐를 무차별 탄압해 주민 100만여 명이 학살당했다. 카탈루냐인들의 저항은 바르샤를 통해 축구로 표출됐다. 그라운드에서 프랑스군 사령관의 기반 마드리드가 연고지인 레알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바르샤 구장인 캄프누는 해방구였다. 그들의 언어인 카탈루냐어를 마음껏 사용하고 그들의 국가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레알은 프랑스군 사령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갈락티코(은하수라는 뜻으로 최고의 선수들만으로 팀을 구성·운영하는 정책)를 만들었다. 또한 스페인 국왕 타이틀이 걸린 국왕컵(키리그에서 FA컵과 같은 대회)에서 4연패를 거두며 국왕으로부터 ‘REAL(영어로는 ROYAL)’이라는 칭호까지 하사 받았다.
 스페인 내전과 프랑스군에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두 팀 간 원한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바르샤와 레알 선수들을 위주로 구성된 스페인 대표팀은 ‘하나’ 보다는 ‘종가루’에 가까웠다. 라리가에서 엘 클라시코가 열리면 항상 으르렁 대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한 유니폼을 입었다고 쉽게 동침할 수는 없었다. 심지어는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서로에게는 패스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였다.
 델 보스케 감독의 위대함은 이 두 구단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가족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 바르샤 선수는 이니에스타, 사비, 파브레가스, 부스케츠 등이 공격진에, 수비수엔 피케가 있다. 레알 선수로는 골키퍼 카시야스와 라모



스, 아르벨로아, 알onso 등 수비수 쪽이 많다. 델 보스케 감독은 ‘바르샤 공격’에 ‘레알 수비’를 합쳐 새로운 ‘스페인 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에는 델 보스케 감독이 1970년부터 14년간 레알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라리가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각각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를 이끈 경력에 크게 작용했다.
 레알 감독시절 팀의 핵심인 라울을 최전방에서 2선으로 물리고 지단을 게임 메이커에서 원어로 돌리는 과감한 전술 변화를 시도할 때도 선수들이 군소리 없이 따를 만큼 따뜻한 지도자였다.
 델 보스케 감독은 이번 유로 2012에서 ‘바르샤 축구’를 펼쳤다. 그는 바르샤를 품은 ‘레알 맨’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한 팀을 만들 수 있었고 스페인 국민들도 큰 저항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델 보스케 감독은 동네 아저씨처럼 늘 소탈하고 겸손하다.
 지난 3일 이탈리아와의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려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한 순간에도 선수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박수를 보내다 자리를 떴다. 선수들끼리 축하 세리머니를 마음껏 하라는 배려였다. 기자회견장에서도 “오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며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또한 “스페인인 역사를 썼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목표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이다”며 ‘무적함대’의 새 목적지를 알렸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광주시생활체육회 ‘생활체육 100분 토론회

오늘 광주교육대학교서

광주시생활체육회가 4일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회의실에서 ‘100세시대, 생활체육 100분 토론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노령화 가속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가 의견과 토론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클럽 운영자, 동호인, 대학교수 등 생활체육분야 관계자들은 생활체육 시설의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2 월드컵 스페인전 승부차기 재연

내일 K리그 올스타전서
 팬사인회·전시회도 열려

2002 한일월드컵 스페인전 승부차기 대결이 재연된다.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는행 K리그 올스타전 2012’에서 박지성을 중심으로 한 ‘TEAM 2002’와 K리그 스타들로 꾸려진 ‘TEAM 2012’가 승부차기 대결을 벌이며 한일월드컵 스페인전의 짜릿했던 순간을 연출한다.
 올스타전을 기념하는 팬 사인회와 전시회도 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 장외행사장에서 ‘TEAM

2002’와 ‘TEAM 2012’ 선수단이 참가하는 팬 사인회가 열린다.
 2002년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2002 월드컵 이탈리아전 골든볼 주인공인 안정환이 신이던 축구, 8강전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 사용했던 PK볼, 선수들의 사인볼과 2012 K리그 공식 공인구 등이 경기장 밖 전시 부스에 진열된다.
 올스타전에 앞서 4일에는 K리그 올스타와 함께 하는 ‘Seeing is Believing 유소년 축구 클리닉’도 열린다.
 시각장애 유소년 6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동국, 이근호 등 18명의 2012 K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일일코치로 참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호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전 출전

감독 추천 선수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뛰는 이대호(30)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데일리스포츠는 이대호가 일본야구기구(NPB)가 지난 2일 발표한 올스타전의 감독 추천 선수 명단에 내야수로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보도했다.
 이대호(18만9866표)는 퍼시픽리그 1루수 부문 올스타 팬 투표에서 이나바 아쓰노리(니혼햄·42만6066표)에 이어 2위에 그쳤지만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 초대장을 거머쥐었다.
 이대호는 현재 타율 0.297(리그 6위), 홈런 11개(2위), 타점 44개(공동 1위)를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이대호는 올스타전 출전이 확정된 뒤 “팬과 선수가 하나가 돼 야구를 즐기는 무대다.



즐겁게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인 선수의 일본프로야구 올스타전 출전은 장훈을 비롯해 백인천·선동열·조성민·구대성·이승엽·임창용·김태균에 이어 이대호가 9번째다. 일본프로야구 올스타전은 20일 오사카 교세라돔, 21일 마쓰야마 붓창 스타디움, 23일 이와테 현영구장에서 차례로 열린다.
 /연남뉴스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세번째 산행 7월 19일(목) / 변산반도-능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 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